

◆ 會員社 動靜 ◆

啓洋電機(株), DC MOTOR 부문 QS 9000 인증 획득

전동공구 전문 생산업체이자 DC MOTOR 전문 제조업체인 啓洋電機(株)(代表:李相翊)는 미국 자동차 BIG 3사(GM·포드·크라이슬러)가 공동으로 규격화하고 부품공급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인증 시스템인 QS 9000 인증을 UL 인증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15일 자동차 DC 모터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획득하였다.

계양전기(주)는 지난 88년부터 미국 GM사에 시트조절용 DC 모터 4기종을 연간 2백만대를 수출하여 왔으나 이번 QS 9000 인증획득을 계기로 시트조절용 모터는 추가로 2백만대 확대 수출이 가능하고,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체개발로 생산중인 완료된 POWER WINDOW MOTOR는 연간 3백만대 이상이 신규로 조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株)光明機電, 정보통신 사업진출

(株)光明機電(會長:張淳明)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30여년간 수배전반을 제조해온 동사는 지난해 모기업이었던 光明機電을 신원그룹에 매각한 후 정보통신사업을 위해 지난 6월 광명텔레콤(자본금 4억원)을 설립하고 텔레콤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스크린폰은 집에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비롯 증권거래 홈쇼핑 수도전기의 자동검침등을 실시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화기이다.

이 사업은 미국과 영국등지에서 실용화에 성공한 미래 첨단 정보통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사는 스크린폰의 개발을 위해 최근 미국 인컴사와 제휴, 한국실정에 적합한 기기개발에 나섰다.

광명텔레콤은 1차로 인컴사에 25만달러의 착수금을 지불했고 점진적으로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내년 4월 국내 시판을 목표로 개발비를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달말에는 스크린폰 개발과 관련 연구진 2명을 인컴사에 파견, 현지 업무협조에 나선다고 광명텔레콤은 밝혔다.

雙龍重工業(株), 자동제어 시스템 국산화

雙龍重工業(株)(代表:金基鎬)는 최근 선박엔진의 핵심 장치인 선박추진기관 자동제어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쌍용중공업과 한국기계연구원등이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선박추진기관 자동제어 시스템은 선박엔진운전과 관련한 핵심기술로 선박운항과 기관운전 전자제어 기계장치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정 유지해 주는 종합제어장치이다.

쌍용중공업은 이 시스템 개발을 계기로 그동안 전량 수입 의존해온 선박추진기관 자동제어장치를 수입 가격의 85% 수준에서 공급, 전량 수입대체해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업용엔진과 발전용 디젤엔진 등 연관 부문에 대한 기술응용등 파급효과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쌍용중공업은 올 연말까지 이 제어시스템의 양산 체제를 구축, 자체 생산하고 있는 「L35MC」와 「S35MC」등 각종 선박 추진기관에 장착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동남아 지역은 물론 유럽등 선진국등을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쌍용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91년 정부의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과제로 채택돼 선박추진기관 자동제어 기술 개발에 착수, 약 5년만에 실용화에 성공했다」며 「이 프로젝트에는 쌍용엔진기술연구소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와 KT전기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喜星電線(株), 광통신사업 본격 진출

喜星電線(株)(代表:裴恩出)가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광통신 케이블사업이 연말께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올해 1월 LG그룹에서 본격 분리, 희성그룹 주력기업인 國際電線으로 변경 출발한 동사는 신규 프로젝트로 광케이블사업에 진출, 연말부터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판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사가 현재 추진중인 광케이블 생산라인은 전주 통신선 전문공장에 건설케 되며 설비는 핀란드 노키아社로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1백억원 규모의 건설 및 설비투자를 한 희성전선의 전주 광케이블 생산공장은 우선 1차적으로 케이블링 부문에 국한키로 하고 향후 2·3차적으로 광섬유부문까지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광케이블 분야는 이미 기존의 LG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대우통신 등 4개사의 광케이블사업 진출업체들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中國을 비롯한 東南亞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에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株)水山重工業, 日에 특장차 수출

(株)水山重工業(代表:朴柱鐸)은 최근 일본 스미토모중공업에 선박의 상하역 작업에 쓰이는 특장차 「데크리프트」 완제품 8대를 수출했다.

동사는 지난해말 스미토모 중공업으로부터 8대의 데크리프트를 1백40만달러에 수주, 자체설계를 통해 제작을 마치고 이번에 8대를 모두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산중공업이 일본 스미토모중공업에 공급한 특장차 데크리프트는 선박의 상하역작업에 쓰이는 장비로 작업 안전성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게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수산중공업은 이번 일본 시장에 대한 특장차 첫 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장비 시장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산중공업은 특히 특장차와 함께 일본시장에 주력 생산품목인 유압브레이커의 수출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産電(株), 에너지절약사업 본격 진출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에너지 절약사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에 본격 참여키로 하고 최근 통상산업부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제도란 전문기업이 빌딩 및 산업체의 에너지설비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기기(인버터, 전자식안정기 등)를 무료로 설치/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투자, 운영비 및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즉, 건물소유주(소비자)에게는 투자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정부에게는 효율적인 부하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의 혜택을, 그리고 전문기업은 기기공급 및 서비스로 이윤을 환수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92년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업이다.

LG산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국제적인 에너지 절약 관련 협회인 미국의 AESP(The Association of Energy Services Professionals)에 가입을 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팀을 조직하였다.

사업전개면에서 볼때 LG산전은 '인버터, 전자식안정기, 최대수요전력감시제어 장치' 등 다양한 고효율기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등 어느 기업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효율기기의 제조부터 진단, 설치, 관리까지 "Total Energy Service Company"로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초기인 금년도는 우선 Pilot Project를 추진하여 기술과 Know-How를 축적해 나가, 이를 경험삼아 향후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전 제품을 적용시켜 ESCO사업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개될 주 사업분야로서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크며 자사 생산제품의 적용이 용이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시설, 건물 및 공공기관 건물, 시설물의 조명, 냉동, 공조분야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릴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설치 및 사후관리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자사의 서비스정보센터 등 기존조직과 효율적 연계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LG산전은 본격적인 사업이 활성화 될 내년에 매출목표 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고효율기기에 대한 자사의 풍부한 기술력 및 경험의 바탕위에 선진사와 기술협력에 의한 다양한 절약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조직 및 기술력을 매년 보강하여 오는 2000년에는 약 500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국내 선두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